

## 한승원의 『연꽃바다』에 나타난 심층생태주의적 양상 연구

김 동 명\*

### 차 례

- |                        |             |
|------------------------|-------------|
| 1. 머리말                 | 1) 관계론적 평등성 |
| 2. 인간중심주의의 가치관과 생태계 파괴 | 2) 유기론적 복잡성 |
| 3. 생태계의 원리와 심층생태주의의 지향 | 3) 순환하는 생태계 |
|                        | 4.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한승원의 소설 『연꽃바다』를 대상으로 심층생태주의를 논의했다.

『연꽃바다』에서는 먼저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생태계 위기가 유발된다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그에 대한 대안의 사유로서 생태계 내 생명현상의 원리를 보여주는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복잡성, 순환하는 생태계가 논의되었다. 먼저 등장인물의 설정과 그들의 대화를 통해 생태계 내 모든 개체는 서로 관계된 가운데 존재 발현이 가능하므로 그 가치가

\* 부경대학교 강사

평등하다는 주제가 추출되었다. 또한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로서 복잡성의 체계 속에 있다는 주제가 논의되었다. 나아가 소설 『연꽃바다』의 공간적 배경인 ‘땅끝마을’의 특성과 그들의 대화를 통해 생태계는 순환성을 발현하는 통합의 담지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한승원 소설 『연꽃바다』에서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을 토대로 대안의 사유인 심층생태주의가 논의되었다. 작가가 지향하는 주제는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생태계의 유기체적 특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 한승원, 심층생태주의,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복잡성, 순환하는 생태계

## 1. 머리말

한승원은<sup>1)</sup> 1968년 등단한 이후 지금까지 소설과 시, 수필 등의 작품을 끊임없이 발표했다. 그는 소설 창작의 과정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의 생명력(氣)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2)</sup> 이를 반영하듯 그의 소설은 현대화의 과정에서 겪는 생명체들의 갈등과,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한 차원 고양된 생명력의 세계로 나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그의 발언은 끊임없이 발표되는 그

---

1) 한승원은 1939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서라벌에 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68년 『대한일보』에 「목선」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77년 소설집 『앞산도 첩첩하고』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을 발표하는 가운데, 소설과 소설집, 시집, 수필집 등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많은 분량의 작품집을 발간했다. 그러한 작품 활동의 결과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전업 소설작가로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보이고 있다.

2) 한승원, *나남선집*, 1989. 18~19쪽.

의 작품과 그 작품에서 다루는 생명력의 주제로 인해 실천성을 확보한 셈이다.

그의 소설에 대한 연구는 생존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평론을 비롯하여 연구논문, 학위 논문을 통해 다양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소재의 측면을 살펴보면 바다와 관련한 논의가 두드러진다.<sup>3)</sup> 주제로는 샤머니즘<sup>4)</sup>, 불교적 상상력<sup>5)</sup>, 역사의식,<sup>6)</sup> 토속성과 한의 양상<sup>7)</sup>, 생태주의<sup>8)</sup> 에로티시즘<sup>9)</sup> 관한 논문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논의들은 다양한 주제로 변별

- 
- 3) 김정하, 『‘原水’ 체험과 ‘바다’ 모티프의 관련성 고찰 - 제주도 무속설화 ‘이공본풀이’와 한승원의 『바다의 빨』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연구』, 제1호, 한국해양대 해양문화연구소, 1996.  
 김 현, 『억압과 저항』, 『한승원 삶과 문학』, 문이당, 2000.  
 권영민, 『토속적 공간과 한의 세계』, 『한승원 삶과 문학』.  
 양진오, 『바다, 어머니의 자궁 그리고 신화』, 『작가세계』 31, 세계사, 1996, 72~87쪽.  
 김형중, 『호남 현대소설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의 정신분석학적 고찰-바다와 모더니티』, 『현대문학이론연구』 28,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진 술, 『한승원 소설의 현실 재현전략으로서 ‘바다’ 형상화가 지닌 의미 고찰』, 선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 김주연, 『샤머니즘은 한국인의 정신인가』, 『작가세계』 31, 88~96쪽.  
 김경희, 『한승원 『불의 딸』 원형분석』,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서희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샤머니즘 양상 연구 : 김동리<무녀도>, <올화>와 한승원의 <불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5) 고희진, 『죽음과 사랑, 그리고 불교적 상상력』, 『작가세계』 31, 88~96쪽.
- 6) 이태동, 『역사와 생명력의 움직임』, 『한승원 삶과 문학』.  
 오형엽, 『에로스·시간·윤희·화엄』, 위의 책.  
 신덕룡, 『바다, 욕망과 반역의 공간』, 『작가세계』 31, 1996, 겨울호, 60~71쪽.  
 장일구, 『역사와 허구의 변증 - 한승원 소설의 구성논리』, 『작가세계』 31, 46~59쪽.
- 7) 권명아, 『에도는 숨결들의 교감』, 『작가세계』 31호, 1996, 겨울호, 97~113쪽.  
 이선영, 『한승원 소설에 나타난 한의 양상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하응백, 『신화와 한의 소설 미학』, 『한승원 삶과 문학』.
- 8) 허유미, 『한승원 소설의 생태학적 세계관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김종성,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의식 연구: 조세희·김원일·한승원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되지만 결국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생명력 추구라는 지점에서 만난다.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 역시 인간과 자연의 생명 현상이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의 소설 『연꽃바다』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생태주의와 관련한 성과가 축적되었다.<sup>10)</sup> 그러나 이런 논의에서는 대안의 사유로 제시된 화엄사상을 분석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생태주의 연구로서 적합성이 충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작금의 생태계 위기는 근대의 경험에 따른 결과이므로 그 전의 사유인 화엄사상을 그대로 적용할 때 대안으로서의 실천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11)</sup>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그의 소설 『연꽃바다』에서 포착되는 공동체 파괴와 화엄사상의 대칭 구조는 생태계 위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고찰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생태계 파괴와 관련하여 화엄사상의 영향으로 정립된 대안적 사유로서 심층생태주의의 논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는<sup>12)</sup> 사회생태주의<sup>13)</sup>, 생태여성주의와<sup>14)</sup> 함께

9) 장윤희, 『소설에 나타나는 고향탐색 모티프 양상 연구-김승욱·이청준·한승원 소설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이루미, 『한승원 소설 인물의 욕망에 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0) 김성곤,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외국문학』 25, 1990, 79~88쪽 참조.

김옥동, 『한승원의 생태학적 개안』, 『한승원 삶과 문학』.

정문권, 『생태학적 상상력의 구현: 한승원의 『연꽃바다』를 중심으로』, 『인문논문』 14, 배재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99.

정연희, 『생태학적 상상력의 구현: 한승원의 『연꽃바다』를 중심으로 1970년대 한승원의 소설에 나타난 ‘바다’의 생태론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3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91~204쪽.

구자희, 『접화군생의 질서를 통한 에콜로이즘의 발현: 한승원의 『연꽃바다』 론』, 『현대소설연구』 2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1) 고현철, 『시적 통합과 시적 감동』,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의 시학』, 2005, 203쪽 참조.

12) 네스의 동료이자 캘리포니아 출신의 학자인 세션과 드볼은 1972년부터 1970년대 중반에 여러 학회와 세션의 회보 『에코필로소피 *Ecophilosophy*』를 통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환경 관련 교수 집단에 심층생태주의를 전파했다. 그들은 스피노

대안을 제시하는 급진생태주의의 한 조류이다. 환경생태주의자들이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면서도 인간중심주의를 고수하는 데 비해,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생태중심적 세계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볼 때, 지구상에 있는 인간과 그 외 모든 생명체의 건강과 번영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가치는 인간 이외의 세계가 인간의 목적에 유용한가 아닌가 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그들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자연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며, 생활 수준의 향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삶의 진가를 찾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동의하는 인간은 직접적이건 간접

---

자와 화이트헤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태철학자들을 설득하여 이제는 그들 스스로 심층생태주의자로 자처하고 남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

와위크 폭스, 정인석 역, 『근원적 생태론이 영향을 주게 된 배경, 『트랜스퍼스널 생태학』, 대운출판, 2002, 75~105쪽 참조.

- 13) 사회생태주의에서는 모든 생태학적 문제는 사회의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입장에서 시작해 생태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 문제에 접근한다. 사회생태주의는 현대 사회의 문제, 즉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특징으로 야기된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문제가 생태계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사회생태주의자들은 한 부류의 인간이 다른 부류의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의 위계 구조가 타파되어야 생태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머레이 북친, 문순홍 옮김, 『자연철학을 향하여』, 『사회생태론』, 솔출판사, 1997. 59~69쪽.

- 14) 생태계 위기와 관련하여 생태 여성주의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가부장적 서구 이원론은 여성과 자연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대조되는 개념들의 차이로부터 위계를 만들고, 그것을 차별의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고 ‘우월한’ 남성이 결핍되고 열등한 여성과 자연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남성 본위의 가부장적 제도가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Warren, Karen J. *Ecological Feminism*. London: Routledge, 1994. (정정호, 『에코페미니즘』, 『탈근대 인식론과 생태학적 상상력』, 한신문화사, 1997. 379쪽에서 재인용)

적이건 필요한 변화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sup>15)</sup>

심층생태주의자들은 그들의 사유를 실천하기 위해 부정적 근대성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생명현상의 원리에 주목한다. 환경생태주의자들이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인간을 위해 생태계 보호를 부르짖는 데 비해<sup>16)</sup> 그들은 생태계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심층생태주의자들은 'Deep심층 또는 근본'을 표방하며 생태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들은 생태계의 유기체적 특성인 관계성·복잡성·순환성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것이다.<sup>17)</sup>

심층생태주의에서 제시하는 생태계의 유기체적 특성으로서 세 가지 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지구생태계의 모든 개체와 대상이 관계된 가운데 비로소 각 개체의 존재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유는 화염사상의 영향을 받은 화이트헤드로부터 비롯되었다.<sup>18)</sup>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있다'는 대승불교의

15) Bill Devall and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Salt Lake City, 1985) p.70.

16) "인간은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보는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애를 제거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그 지배를 추진해 가려고 하는 것이다."

Bookchin, Murray, *Toward an ecological society*(Montreal : Black Rose Books, 1980) p.59. (와위크 폭스, 정인석 역, 『인간 중심으로부터의 청산』, 앞의 책, 43쪽에서 재인용)

17) Arne Naess, David Rothenberg Trans, & Ed,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196~209.

18) 심층생태주의에서 주창하는 관계론의 개념 속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기 실현'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실현'은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상가들이 주장한 개인의 지적·영적 잠재력을 성취한다는 자기 실현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네스가 스피노자와 간디의 영향을 받아, 정립한 '자기 실현 Self-realization!'의 개념은 자기 감각을 현세적인 의미로 될 수 있는 한 확장하는 것을 말하며, 'self'의 's'를 대문자 'S'로 나타내어, 그 의미를 표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와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

화염사상이 ‘대상이 관계를 만든다’는 종래의 인식을 뒤엎고 ‘관계가 대상을 결정한다’<sup>19)</sup>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론을 거쳐 심층생태주의의 관계론적 사유로 이어진 것이다.<sup>20)</sup>

한편, 생태계의 원리를 뜻하는 복잡성(complexity)은 단순성과는 대조적으로 지구생태계 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불확실성·예측불가능성·미결정성을 담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복잡계로서의 지구생태계는 수많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진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개체의 생명현상은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을 일으킨 원천이 무엇이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sup>21)</sup> 이러한 특성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프랙탈, 초기사건의 민감성 등으로 설명된다.

또한 지구생태계의 생명현상은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경로로서 순환성을 담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태계 속의 모든 생물은 폐기물을 생산하지만 지구생태계는 거의 아무런 폐기물도 남기지 않고 유지된다.<sup>22)</sup> 지구생태계는 인간의 오장육부와 사지에 해당하는 핵심기관과 부수적 기관을 지니고 활동하기 때문이다.<sup>23)</sup> 그러므로 일부가 인위적으로 변경됨으로써 파괴되는 생태계의 위기는 생태계 전체의 위기로 이어

---

는 것을 말한다.

와위크 폭스, 정인석 역, 『아네 네스와 디프 이콜러지의 의미』, 앞의 책, 157쪽.

19) 화염사상을 수용한 화이트헤드는 존재론적 형이상학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가운데 모든 실재는 우주의 나머지 것들과 함께 짜여진 관점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계가 대상을 규정한다는 것은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대상이 현현됨을 의미한다. 관계적 구조는 전형적인 자연계의 상태인 동시에 개별 생명체의 양상을 말해 준다.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범주의 도식』, 『과정과 실재』, 77~100쪽 참조.

20) 김상일, 『과정 철학의 성격과 방법』,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 서광사, 1993, 31~35쪽 참조.

21) F. Capra, *Ecological Literacy, The Web of Life*, p.299.

22) F. Capra, *Ecological Literacy, ibid*, p.299.

23) James E. Lovelock, 홍욱희 역, 『가이아』, 홍욱희 역, 범양사, 1990, 202~223쪽.

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은 계절의 순환, 시간의 순환, 각 개체의 생성과 소멸, 개체와 전체의 순환 등으로 설명된다.

주지하다시피, 소설 『연꽃바다』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구생태계 내 생명현상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내장한다. 이러한 점이 생태주의의 하위 갈래 가운데 대안의 사유인 심층생태주의의 관점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연꽃바다』의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생태계의 원리인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복잡성, 순환하는 생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sup>24)</sup>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할 때, 『연꽃바다』에 나타나는 작가의 사유를 좀 더 정확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인간중심주의의 가치관과 생태계 파괴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생태계 파괴가 유발되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유기적인 생태적 관계망으로부터 벗어나 예외적 존재로 군림하며 자연을 인간에 의해 조작되고 이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만 인식한 결과라는 것이다.<sup>25)</sup> 심층생태주의자 카프라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유기체는 틀림없이 자신의 유기체적 환경을 파괴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자신조차 파괴하게 될 것이다”라는<sup>26)</sup> 말로 경고한다. 카프라의 발언 속에는 생태계의 각 개체가 서로를 포함한다는 유기체적 의미와 함

24) 이 구조는 연구자의 기존 논문 『이성선 시의 심층생태주의적 양상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틀과 같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김동명, 『이성선 시의 심층생태주의적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6집, 2010.12, 293~329쪽.

25) 이진우, 『녹색 사유와 인간주의』, 『녹색 사유와 에코토피아』, 문예출판사, 1996, 134쪽.

26) F. 카프라, 이성범 외 역,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출판부, 1985. 273쪽.



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인간은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개체와 함께 전체 생태계의 항상성에 관련되는 유기체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27)</sup> 이와 같은 원리를 인식하는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인류로 하여금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중심주의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생태중심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소설 『연꽃바다』에 그려진 ‘땅끝마을’은 해변의 특성이 보존된 지역으로서 심층생태주의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생태계의 모델로 볼 수 있다. 바닷가의 작은 마을을 의미하는 땅끝마을은 대규모의 기술이나 물질만능주의와 배치되는 가운데 “전망이 좋은 땅”과, “쪽빛으로 출렁거리는 바다”, “무성한 백양나무 숲” 등 생태계의 완전성을 환기하는 비유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한편, 『연꽃바다』의 등장인물 가운데 떠돌이 신비주의자 풍장이 영감과 박주철의 손자 토말, 잠시 되살아났던 박주철의 대화에서는 심층생태주의의 지향이 포착된다. 풍장이 영감은 소설의 여러 장면에서 화엄사상과 관련한 생명현상의 원리를 강조한다. 박주철의 손자 토말은 박주철로부터 회색 어둠을 쫓아내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 그의 눈에 꿀임 없이 전깃불을 비추며 눈을 뜨라고 외친다. 잠시 깨어난 박주철은 인간은 스스로 “우주적인 근원의 힘을 알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요가’를 알려주고 세상을 떠난다.<sup>28)</sup> 이들의 대화와 행위를 통해 포착되는 사유는 인간이 무엇보다 먼저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주, 즉 생태계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에 빠져들기 전까지의 농장주 박주철은 그의 가족이 안고

27) Ludwig Treppl, *Geschichte der Ökologie*, (Frankfurt/M., 1987) p.17. (김용민, 『문학과 생태학』, 『생태문학』, 책세상, 2003. 21쪽에서 재인용)

28) 한승원, 『연꽃바다』, 세계사, 1997, 235쪽 참조.

있는 갈등과 그로 인한 불행의 근원적 인물로 묘사된다. 그가 자행한 온갖 악덕으로 인해 그의 자식들까지도 그 불행의 언저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9)</sup> 그는 욕심이 지나친 정치적 시인이자 부도덕한 정치인으로서 자기 몸의 아픔과 즐거움, 은밀하게 감추어 놓은 첩들과 돈에 대한 욕심, 출세와 영달만 좇다가 내연녀의 배신에 의해 모든 것이 붕괴되고, 그 충격으로 잠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77쪽) 그의 살아가는 방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자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가운데 생명 파괴라는 결과를 유발함으로써 반생태적이라는 의미로 이어진다.

그의 자식들인 윤호, 윤석, 윤혜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양태를 보인다. 농장을 유락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회만 넘보는 차남 윤호, 농장에 눈독을 들이며 조카 토말을 납치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는 딸 윤혜, 농장을 양식장으로 만들기 위해 매실나무를 베고 있는 배 다른 막내아들 윤석 등 매실농장 형제들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좇는 반생태적 생활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아버지인 박주철을 닮았다. 그들이 자연을 표상하는 매실농장을 물질적 가치로만 인식하며, 물질중심주의적 욕망을 좇고자 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그들의 행위와 생활방식은 생태계 위기를 유발한 인간중심주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박새와 백양나무의 대화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매실 농장의 개발과 관련한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형체를 바꾸어놓곤 했다. 그들은 참으로 묘한 족속이다. 자기들의 잣대로 재고 자기들 위주로만 생각한다. 그 어느 것의 입장이나 처지에서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30쪽)

인간은 신뢰할만한 동물이 아니다. 무지막지하게 잔인한 것들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일무이한 족속이다. (182-183쪽)

29) 구자희, 앞의 논문, 87쪽 참조.

위의 인용문은 동물계를 표상하는 박새와 식물계를 대표하는 백양나무 간에 오고 가는 대화이다. 우선 “청렴하고 깨끗한 시인들의 군락으로”(14쪽) 칭송되는 백양나무는 자신들이 자생적으로 군락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자신들에 비해 매실나무 숲이 인위적으로 조성되었으므로 반드시 인간의 또 다른 의도에 의해 제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한다. 백양나무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식목된 매실나무가 더 이상 인간들에게 교환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좇아 매실농장을 이윤 창출이 가능한 양식장으로 바꾸기 위해 매실나무를 베어가기 시작한다. 윤석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지배의식과 동·식물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박새와 백양나무로 표상된 동·식물들은 그러한 윤석을 “묘한 족속”이며 “무지막지하게 잔인한” 종(種)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장면에서 생태계 파괴를 자행하는 인간중심주의와 그에 대한 서술자의 반성적 사유가 포착된다. 박새와 백양나무의 대화를 통해 노골화되는 인간중심주의의 문제는 윤석과 윤길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은 서울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어, 빌어먹을…… 인구 천만이 넘는 도시들은 다 괴물로 변하게 되고, 그 속에 서식하는 것들은 모두 작은 괴물 알맹이들이 되어버린다더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 새끼들 말이야.(110쪽)

자연이나 시골은 신의 작품이고, 도시는 악마의 작품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로구나, 지금 너(110쪽)

위 인용문에서 윤석, 윤호는 다른 인간들의 생태계 파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신 외에 다른 인간들의 생태계 파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대인의 실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들이 볼 때, 자연을 비유하는 “삼천리 방방곡곡은”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극단적으로 “망가지”고 있다. 인간들이 자연으로서의 본성을 버리고 있다고 인식하는 그들은 인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새끼들”이라고 표현한다. 자연의 어디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을 대상으로 못할 일이 없는 인간이 자신과 자연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른 점을 이와 같이 비유한 것이다.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신비주의자 풍장이 영감의 발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의도로 자행되는 생태계 “파괴나 해체, 그것은 악마의 짓이여”(111쪽)라는 풍장이 영감의 발언에는 반생태적 인간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그 역시 생태계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길 밖에 없다고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땅끝마을에 거주하는 인간들과 동·식물의 대화는 매실농장을 유락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농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과 그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내용은 글의 앞뒤 문맥으로 따져볼 때, 작금의 흐름인 자본주의 사회의 과학기술과 생활방식, 그에 대한 비판의 비유로 해석이 가능하다. 『연꽃바다』에서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연의 생태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추동하는 것이다.

### 3. 생태계의 원리와 심층생태주의의 지향

주지하다시피, 인간을 비롯하여 동·식물, 무기물까지 포함하는 지구 생태계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 관련된 가운데 스스로의 존재발현이 가능

하다. 또한 개체적 존재와 전체는 복잡성의 상태에서 창발적 생성을 진행한다. 이러한 가운데 개체적 생명체의 독립적인 순환과 전체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심층생태주의에서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관계성, 복잡성을 확보한 지구생태계가 항상성을 유지하며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sup>30)</sup>

이러한 특성은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생태주의에서 포착한 생명현상의 대표적 원리로서 그에 대한 이해는 근원적인 대안의 가치를 담보한다.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생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 『연꽃바다』에서 제시하는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복잡성, 순환하는 생태계는 인간에게 인간과 생태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먼저 관계론적 평등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관계론적 평등성

주지하다시피, 관계론적 사유의 방식이란 모든 존재의 생명현상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자연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인간의 가치평가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평등성의 의미로 이어진다. 각 개체의 가치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sup>31)</sup>

심층생태주의에서는 이러한 사유와 관련하여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sup>32)</sup>로서 ‘관계가 대상을 결정한다’는 명제를 적극 수용한

30) 김동명, 『심층생태주의의 유기론적 시학』, 국학자료원, 2013, 16쪽.

31) 신덕룡, 『생명시의 성격과 시적 상상력』, 신덕룡 엮음 『초록 생명의 길Ⅱ』, 시와 사람사, 2001. 222쪽.

32)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이 세계의 어떠한 것도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존재를 떠나서 혹은 그것을 넘어서 아무

다. 화엄사상의 영향을 받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론에서 각 대상은 서로 연결될 뿐 아니라, 한 대상의 안과 밖은 연결되어 막힘이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하면 지구생태계 속의 자연, 자연 속의 인간, 인간 속의 인간은 서로 연결될 뿐 아니라, 모든 대상의 안과 밖, 즉 현상이나 본질 또한 연결되어 있다. 각 개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되, 다른 개체의 작용인이나 저항, 또는 방해의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각자의 생명현상을 발현한다는 것이다.

『연꽃바다』에서 관계론적 사유는 등장인물과 배경, 그들의 대화에서 두루 나타난다. 박새가 동물계를 표상하며, 백양나무와 매실나무가 식물계의 대표성으로 간주된다면 『연꽃바다』의 공간적 배경인 땅끝마을은 인간과 동물과 식물계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의 비유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 명의 입체적 인간들과 새와 나무가 작중 인물로 등장하며, 그들의 대화가 교호 작용하면서 관계론의 주제가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대화의 진행은 어느 한 주체가 우세하게 노출되는 헤게모니가 작동하지 않는다. 동물인 박새와 식물인 백양나무, 어린아이인 토말이부터 합리주의자 윤호, 신비주의자 풍장이 영감, 삶의 마지막에 이른 박주철까지 모든 존재가 같은 비중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없어도 안되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법이니까”(111쪽)라는 풍장이 영감의 발언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의미를 창출한다.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생물과 무생물까지 서로의 엮어짐에 의해서만 각자의 존재 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전제될 때, 모든 존재의 가치는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호와 윤석조차 그들의 대화를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는 관계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말이야(… 중략

---

것도 없다는 의미이며, 다른 어떤 사물들이 ‘실존’이란 의미로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모두 사실 존재들로부터 잇달아 이어져 나온 관계의 양상일 뿐이다.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유기체적 세계관』, 앞의 책, 739~745쪽 참조.

…)나는 이 농장을 손끝 하나 까딱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얼마쯤 뒤에 여기에다 휴양객들을 위한 콘도나 방갈로를 지어서 분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111-117쪽)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남남이 된다는 것이고, 너를 죽이고 내가 사느냐 너로 말미암아 내가 죽느냐 하는 적대관계가 된다.(169쪽)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맺은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해요. 이것과 저것이 맺은 관계, 조그하고 요그하고가 맺은 관계……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그 관계를 부정하고 혼자서만 살아가려고 하면 그 관계가 깨어져요.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게 되어 있어요. 나만 살고 너는 죽어야 한다는 논리는 파국을 가져오고 마는 거예요.(166쪽)

위 인용문에서 보듯 유락지 개발을 위해 농장을 소유하고자 하는 윤호 역시 관계에 대해 같은 생각을 보여준다.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는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그의 발언에서 관계론적 사유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매실나무를 주살하는 윤석에 의해서 더욱 노골화된다. 그 역시 “관계가 깨어진” 결과는 “모두가 남남이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너를 죽이고 내가 사느냐”, 너 때문에 “내가 죽느냐 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그들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공통의 메시지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이 과도한 지배욕을 드러낼 때, 관계성의 와해로 인해 서로의 생명현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윤호와 윤석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외치는 현대인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인 양 행하며, 생태계 위기를 유발하는 가운데서도 타자가 행하는 관계의 파괴에 대해

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박새들의 대화에서는 관계가 대상을 규정한다는 생명현상의 원리가 드러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다른 개체와 관계됨으로써 비로소 스스로의 존재 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앞산의 신령님이 가르쳐준 약을 먹고 저를 잉태했대요. 그 약은 해풍과 한여름의 불 같은 피약별과 밤바다의 수면에 내려와 광기 어린 춤을 추는 푸른 별빛 누른 별빛 붉은 별빛과 기(氣) 드센 땅끝의 땅김과 미역과 다시마의 향과 말미잘의 거웃 같은 용털 몇 가닥을 한데 버무린 것 이래요.(6-7쪽)

짹짹한 해풍과 황금 색깔의 햇별과 은쟁반 빛깔의 달빛과 밤바다의 쭈부쟁이 꽃 색의 별빛과 민들레꽃 색깔의 별빛과 여뀌꽃 색의 별빛과 미역이나 다시마의 향과 말미잘의 거웃 같은 용털 가루와 땅끝 산허리에서 솟는 연꽃향 같은 김이 한데 잘 스며든 박새알(245쪽)

위 인용문에서 암컷 박새는 자신의 어미 박새가 “해풍과 한여름의 불 같은 피약별과 밤바다의 수면에 내려와 광기 어린 춤을 추는 푸른 별빛 누른 별빛” 등으로 만든 약을 먹고 자신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수컷 박새 역시 아내 박새가 “짹짹한 해풍과 황금 색깔의 햇별”, “은쟁반 빛깔의 달빛과 밤바다의 쭈부쟁이꽃”, “민들레꽃 색깔의 별빛”과 “미역이나 다시마의 향과 말미잘의 거웃 같은 용털 가루와 땅끝 산허리에서 솟는 연꽃향 같은 김이” 스며들어 있는 알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는다.

이러한 구절에서 모든 생명의 생성에는 애초에 시·공간의 유기체가 온전히 관계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전 우주가 융섭해 들어와 생성된 박새 한 알이 관계로서 실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든 개체와 전체의 존재 발현은 서로 관계된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모든 개체와 전체가 ‘관계로서의 실재’라는 것이다. 이는 인간을 비롯



한 모든 생명체가 관계로서의 실재라는 사실을 환기하며, 각 개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관계로서의 실재’라는 생명현상의 원리를 이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설 『연꽃 바다』에 그려진 생태계는 모든 존재들이 관계된 가운데 각자의 생명현상이 발현된다는 주제와 그를 파괴하는 반생태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논의되었다. 농장의 가족과 풍장이 영감, 백양나무와 박새는 서로에게 생명현상의 작인 역할을 하는가 하면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생명현상을 발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관계의 변화 속에서 서로 얽힌 채 생성한다는 복잡성의 의미로 이어진다. 매실농장으로 표상된 지구생태계는 단순한 물질들의 체계가 아니라 서로 관계된 가운데 성장하고 변하며 움직이는 하나의 사건이자 생명체라는 것이다.<sup>33)</sup>

## 2) 유기론적 복잡성

주지하다시피, 복잡성으로서의 지구생태계는 혼돈과 질서(Cosmos)가 균형을 이루며 안정성과 유동성이 뒤섞인 상태에 놓여 있다. 노자는 이를 유(有)와 무(無)가 본래 같은 것이지만 생성계로 나오게 되면서부터 서로 달리 하니,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생성된다고 설명한다.<sup>34)</sup> 이러한 사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며, 심층생태주의에서 복잡성의 강령으로 정립되었다. 그들이 볼 때, 생태계를 변질시키고 황폐화시킨 근거는 생태계를 단순성<sup>35)</sup>으로서의 무(無)로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33) Arne Naess, 문순홍 편저, 『생태학의 담론』, 솔, 1999, 67쪽.

34) 노자, 김경수 역, 『노자역주』, 문사철, 2010, 28쪽 참조.

35) 단순성으로 볼 때, 세계의 질서는 하나의 법, 하나의 원칙으로 화원된다. 단순성은 일자이거나 다수로서 일자가 동시에 다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단순성 원칙은 연결된 것을 나누거나 다양한 것을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에드가 모랭, 신지은, 『복잡성 패러다임』, 『복잡성 사고 입문』, 에코리브르,

것이다.<sup>36)</sup>

뿐만 아니라, 지구생태계 내 각 개체와 생태계는 스스로의 존재 발현을 지속하는 과정에서도 불확실성·예측불가능성·미결정성을 담지하는 복잡성의 체계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지구생태계와 생태계 내 모든 생명체는 관계로서 대상을 현현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초기사건의 민감성 또한 자기조직화와 함께 복잡성의 특징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우선 ‘연꽃바다’라는 표제는 복잡성과 관련하여 혼돈으로부터의 생성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불교의 상징인 연꽃은 수련과의 여러해살이 물풀로, 뿌리는 비대하고 마디가 있으며 가로 뻗은 식물이다. 연꽃은 맑은 물보다는 혼탁한 진흙탕의 연못에서 잘 자란다. 이때, 연못의 진흙은 혼란스러움과 무질서의 의미를 담지하며, 연꽃을 피워내는 역할로서 질서를 낳는 혼돈으로 의미화된다. 연못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혼돈으로부터 출현하는 질서이자 생명현상으로서 복잡성을 담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은 주목된다.

네 할아버지가 빠져들어가 있는 어둠은 일차원적인 검은 어둠이고, 그 어둠은 장차 현묘한 높은 세계로 나아가려고 익어가고 있는,…… 말하자면 발효하고 있는 어둠인 것이고, 그것은 장차 향기 좋고 맛있는 술 같은 것으로 승화해갈 것이다. 더 깊이 설명을 하자면…… 아주 오래 전에, 강진과 흑산도에서 유배살이를 한 정다산과 정약전 두 형제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흑산도를 자산도라 했단다. 그 자란도라고 할 때 자(茲)는 검을 현(玄)자 둘을 나란히 쓴 것이고, <검을 자>라고 읽는다.(78쪽)

위 인용문에서 “흑산도를 자산도라” 한 이유 역시 같은 의미를 낳는

2012, 90쪽 참조.

36) 이진우, 『지구의 언어, 침묵』, 앞의 책, 93쪽 참조.

다. “흑(黑)”은 현실적으로 새까만 것, 즉 일차원적인 검정색을 뜻하지만 (78쪽) 자산도라 할 때, “자(玆)”는 애초에 ‘먼’ 또는 ‘그윽함’으로서의 검정을 의미하는 현(玄)이 겹친 글자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자(玆)는 무한하게 분리해 나가며 조화를 이루는 우주, 생태계의 생명현상을 암시한다. 풍장이 영감은 박주철이 빠져 있는 “어둠”이 점차 “익어가고 있는 어둠”으로서 생명을 배대한 혼돈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검을 자>”에 얽힌 “정다산과 정약전” 형제의 일화를 들려주는 것이다.

땅끝마을의 위치에 대한 백양나무의 발언에서도 복잡성의 사유가 포착된다. 백양나무는 박새에게 땅끝 바닷가의 농장에 대하여 농장의 모습이 남근을 닮고 있다면 그 앞에 펼쳐 있는 바다는 여근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땅끝 마을의 지형적 특징 역시 모든 존재의 완전한 결합으로서 ‘하나’라는 의미를 창출하는 동시에 음양의 조화로서 생성의 근원을 상징한다. 땅끝 해변은 어둠과 밝음, 생성과 성장, 소멸과 순환을 ‘하나’로서 내장한 세계, 즉 풍요와 다산의 담지체라는 것이다.

한편, 복잡성의 하부 이론 중 최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론이 프랙탈(fractal) 현상이다.<sup>37)</sup> 프랙탈 이론의 창시자인 만델브로는 불규칙한 자연현상의 다양성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형태들이 공통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가 볼 때, 프랙탈 현상은 개체와 개체끼리, 개체는 전체와 연결되어 생성되는 가운데 서로 완전히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혼란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유사한 패턴으로 운동하며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생명현상의 원리가 프랙탈, 즉 자기유사성이라는 것이다.

풍장이 영감의 다음 발언에서는 지구생태계의 프랙탈 현상이 포착된다.

37) 프랙탈(fractal)은 확대된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자기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의미한다. 구름, 리아스식 해안선, 동물의 혈관 분포 형태, 양치식물의 잎이나 나뭇가지 모양, 창문에 성애가 낀 모습, 산맥의 모습, 뇌의 구조 등이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다. 윤영수·채승범,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2005, 539쪽.

말하자면 저 호수 같은 바다를 빙 둘러싸고 있는 섬들의 쭈뼛쭈뼛한 산봉우리들하고 이 언덕빼기 뒤로 솟은 봉우리들이 바로 그 연꽃 잎사귀들인 것이고……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들은 꽃 속에 있는 수술들인 것이여.……이 연꽃들은 제대로 바라볼 줄을 알게 되며는 자기가 앓고 있는 모든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여.(198쪽)

위 인용문에서 땅끝마을은 연꽃의 형상으로서 프랙탈 현상을 암시한다. 여기서 “연꽃”은 땅끝 마을의 지형과 같은 형태로 설명된다. “언덕빼기 뒤로 솟은 봉우리들이 바로 그 연꽃 잎사귀들인 것이고……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들은 꽃 속에 있는 수술들”이라는 풍장이의 말에서 연꽃의 모양을 그대로 닮았다는 땅끝마을은 생태계 내 모든 대상들의 생명현상에서 나타나는 프랙탈을 환기한다. 지구생태계의 모든 개체는 생명현상의 과정에서 서로를 반영하는 가운데 자기 동일성 및 그들 상호간의 다양성을 예증하는 것이다.

프랙탈 현상은 박주철의 소생을 갈망하는 토말이의 외침에서도 포착된다. “눈떠봐요오!” “눈떠봐아요오!!” “눈떠어!” “눈떠요오!” “눈떠요! 얼른 번쩍 떠봐요!” “눈.을.뜨.고.이.불.빛.을.보.란.말.이.요.오!”라는 외침은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된다. 토말의 외침은 할아버지 박주철이 깨어나기를 갈망하는 생명성의 의미와 함께 반복되어 퍼져나가는 파동의 균형과 조화적 특성으로서 프랙탈의 의미를 낳는다. 토말은 눈을 감고 웅크린 박주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소설의 전반부부터 끝까지 전짓 불을 비추며 눈을 뜨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토말의 외침 끝에 눈을 뜬 박주철은 자식들에게 개체와 전체의 합일을 의미하는 ‘요가’를 전해준다.

우주적인 근원의 힘을 알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요가라고 한다. 그 속에서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하나인 것이고, 장미꽃과 시궁창이 하나인 것이고, 흙과 돌과 금덩이가 하나인 것이다. 기쁨과 슬픔과 언짢음이 하나이고, 비난과 칭찬이라는 것도 하나이고 전쟁터에서 만난 적군

과 아군이 하나인 것이다. 그것들이 하나임을 아는 사람은 우주적인 근원에 도달한 사람이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기 다스림의 힘을 짙짙하게 얻게 된다.(235쪽)

내가 가르쳐주는 요가를 배우고 나면 이 농장땅의 문제도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다. 우주적인 근원은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그 우주적인 근원의 힘을 알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요가라고 한다. 그 속에선 즐거움과 괴로움이 하나인 것이고, 장미꽃과 시궁창이 하나인 것이고, 흙과 돌과 금덩이가 하나인 것이다. 기쁨과 슬픔과 언짢음이 하나이고, 비난과 칭찬이라는 것도 하나이고 전쟁터에서 만난 적군과 아군이 하나인 것이다. 그것들이 하나임을 아는 사람은 우주적인 근원에 도달한 사람이다.(235쪽)

박주철이 깨어나서 가족들에게 ‘요가’를 전해주는 상황은 생태계의 원리인 복잡성과 관련하여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 evolution)의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자기조직화란 시스템의 구조가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관련 없이 스스로 혁신하여 항상성을 유지해나가는 현상을 말한다<sup>38)</sup>. 인간의 장기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니며, 그러한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신축과 생성·소멸이 가능하다는 생태계의 특성<sup>39)</sup>은 자기조직화를 담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토말의 외침으로 잠에서 깨어난 박주철이 농장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자식들에게 ‘요가’를 전해 주고 다시 잠에 빠지는 상황은 주목된다. 여기서 박주철의 깨달음은 그의 가족들에게 반성적 사유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식들에게 ‘요가’에 이르기 위해 욕망과 집착을 버릴 것을 권유한다. “욕망”과 “집착”이 자연과 배치됨으로써 인간중심주의를 표상한다

38) 스투어트 카우프만, 국형태 역, 『고산지대의 모험』, 『혼돈의 가장자리』, 사이언스북스, 2002, 328쪽.

39) James E. Lovelock, 앞의 책, 202~223쪽.

고 볼 때, 그가 말하는 요가는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합일된 상태를 말한다. 박주철은 그러한 세계를 “즐거움과 괴로움이 하나이고, 장미꽃과 시궁창이 하나이고, 흙과 돌과 금덩이가” ‘하나’로서 구분되지 않는 합일의 상태라고 설명한다. 그 상태는 그 모두가 자연이며 우주 그 자체라는 의미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토말의 외침으로 잠에서 깨어난 박주철이 ‘요가’를 알려주고 다시 잠에 빠지는 서사는 생태계 위기 문제와 관련하여 땅끝마을로 비유된 지구생태계의 자기조직화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복잡성의 사유 가운데 비선형성을 보여주는 현상의 하나가 초기 사건의 민감성이라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사소한 초기 상태의 미세한 변화(Sensitive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s)가 시스템 진화에 예측하지 못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로렌츠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는<sup>40)</sup> 생태계 위기에 관한 논의에서 빈번하게 언급된다. 『연꽃바다』에서 이러한 사유는 큰아들이 비명에 가자 박주철의 아내, 윤길의 어머니가 죽고 박주철이 잠에 빠지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더 크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풍자의 발언에서 포착된다.(196쪽) 매실농장 가족의 문제적 현상이 지구생태계의 위기를 비유한다고 볼 때, 이는 복잡성 이론의 하위 이론인 나비효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소설 『연꽃바다』에서 그려진 땅끝마을은 생명의 근원을 표상하는 동시에 복잡성의 상태로서 생명의 담지체라는 주제가 논의되었다. 땅끝마을은 지구생태계를 표상하며, 매실농장의 인간과 동·식물로 표상된 생태계 내 모든 개체는 생명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자연으로서의 인간은 자연의 자생력인 복잡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40) 에드워드 로렌츠, 박배식 역, 『카오스의 안과 밖』, 『카오스의 본질』, 파라북스, 2006, 116쪽 참조.

### 3) 순환하는 생태계

지구생태계의 생명현상은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경로로서 순환성이 전제된다. 생태계는 열린 시스템이며, 생태계 속의 모든 생물은 폐기물을 생산하지만 한 종으로서의 지구생태계는 거의 아무런 폐기물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sup>41)</sup> 생물과 무생물로 이루어진 지구생태계는 끊임없이 광물, 물, 공기의 동일한 분자들을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순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성은 기(氣)의 성쇠와 변화에 따라 진행되는 천체와 계절의 순환, 생명체들의 생성과 사멸과 같은 흐름에서 포착된다. 모든 개체의 생명현상이란 한 번의 생성과 사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흐름과 연결되는 가운데 끊임없이 순환한다 것이다.

풍장이 영감의 발언에서는 순환하는 생명현상에 대한 사유가 포착된다.

할아버지는 태어나기 이전으로 환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몸을 새우처럼 웅크린 채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계추같이 흔들거리면서 죽음이라는 근원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돌아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원이라는 곳에는 한줌 흙이 됴으로써 도달하거나, 한 움큼의 증기가 되어 날아가 이르게 되는 것이야.(…중략…) 육체를 벗어난 모든 혼령들은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살아있는 어떤 것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쿵쿵쿵쿵 으음 으음……좌우간,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 있는 아기들이 지금 네 할아버지처럼 꼭 저런 모습을 하고 있단다. 타원형 알의 모습, 휘휘 휘도는 수레바퀴테들의 모습…… 태 안에 들어 있는 아기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만다라의 모양새 하고 똑같기도 하지.(40-41쪽)

주지하다시피, 우로보로스(Uroboros)는 생명의 상징으로서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을 의미한다. 뱀이 자신의 꼬리를 먹어 들어

---

41) F. Capra, *Ecological Literacy, The Web of Life*, p.299.

간다고 할 때, 뱀은 자신의 꼬리를 완전히 먹을 수 없다는 사실로서 순환성을 담지한다. 자신의 입이 자신을 먹어야 하는 역설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우로보로스 상징은 심층생태주의에서 강조하는 순환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기 소멸과 자기 갱신을 영구히 하는 힘으로써 꼬리를 맴도는 우로보로스 상징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생태계와 생태계 내 각 개체의 생명현상이라는 의미와 닿는 것이다.<sup>42)</sup>

위 인용문에서 풍장이 영감은 “휘휘 휘도는 수레바퀴테들의 모습”의 박주철이 생성과 사멸을 담지한 순환의 과정에 놓여 있음을 인식한다. 그는 박주철의 형상이 “죽음이라는 근원을 향해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지만 “육체를 벗어난” “혼령”은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살아있는 어떤 것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볼 때, 박주철의 형상은 “몸을 새우처럼 움크린 채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지만 “시계추같이 흔들거리면서 죽음이라는 근원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돌아 들어가” 있는 상태로 파악된다. 풍장이 영감이 인식한 박주철의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기관이 형성되기 전의 미분화 상태로 환원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지함으로써 우로보로스의 순환성으로 의미화 되는 것이다.

다음 인용문에서는 생성과 사멸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로서 순환성이 포착된다.

전생에 백정 노릇을 한 사람은 이승에서 스님이 되는 법이고, 전생에 화류계였던 여자는 이승에서 결벽증이 아주아주 심한 정숙한 안방마님이 되고 나중에는 불감증이 생기고,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때문에 의부증이 생기고 그래서 밤잠 못 자고 부들부들 떨면서 비쩍 말라지고…… 전생에 쫓병 노릇을 한 사람은 이승에서 장군이 되어갔고 부하들한테 으스대고……(69쪽)

42) 쿠퍼 진, 이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2007, 258쪽 참조.



지구생태계의 유기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체적인 현상은 변화의 과정으로서 각 개체가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전부임을 알 수 있다. 풍장이 영감은 이러한 순환의식을 “전생에 백정 노릇을 한 사람은” 반대로 “이승에서 스님이 되”고 “전생에 화류계였던 여자는 이승에서” “정숙한 안방마님이” 된다고 표현한다. 이는 모든 개체가 윤회의 고리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가 볼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시 다른 형상으로 태어나며, 다음에 또 다른 형상으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순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 역시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상으로서 우로보로스의 순환성으로 의미화된다. 모든 생명체가 과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생(生)과 사(死)의 반복된 시간이 누적되어 현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미래의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담지한다. 기존의 존재는 새로운 존재를 낳기 위해 혼돈과 미분화 상태로 돌아가게 됨과 동시에 기존의 존재를 벗어남으로써 현재의 생명으로 생성된다는 것이다. 풍장이 영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죽음과 관련하여 순환성에 대한 사유를 펼친다.

내 뱀가루들은 이 자리에서 움터나는 민들레풀뿌리 속으로 들어가거나, 들판의 오랑캐풀 민들레풀 개망초 물봉숭아풀 미나리아제비 풀 속으로 들어가 꽃으로 피어나고,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혼자서 바다수면위로 은물을 뿌리며 떠오르는 달도 보고 별들도 보고 아침안개도 보고 아침노을 저녁노을도 보면서 다음 또한 세상을 영원히, 영원히 살 것이다.(237쪽)

힌두교는 불교사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힌두교의 핵심 사상인 범아일여(梵我一如)는 자아 확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화엄사상과 같은 맥락에 놓인다. 특히, 심층생태주의자 네스의 ‘자기실현’은 간디의 영향에서

비롯된 바<sup>43)</sup>, 아트만과 브라흐만의 순환성은 주목된다. 우파니샤드에서 우주의 창조, 유지, 파괴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상호작용으로서 순환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주를 창조한 브라흐만은 그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 피조물들 속으로 무수히 분화되어 들어간다고 설명된다.<sup>44)</sup> 스스로를 무수히 분화시켜 다시 피조물 하나 하나 속으로 들어갔을 때, 피조물은 그의 영혼으로서 아트만이 됨으로써 순환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풍장이 영감은 자신을 대상으로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순환성에 대한 사유를 펼친다. 그는 자신의 “뻗가루”가 “민들레풀뿌리 속으로 들어가거나” “들판의 오랑캐풀 민들레풀 개망초” 등 “풀 속으로 들어가 꽃으로 피어나”는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죽으면 브라흐만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아트만으로 생성되고 다시 합일하는 순환을 계속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지구생태계, 즉 브라흐만의 조각들은 각 개체인 아트만으로 순환하는 것이며, 또한 스스로 지구생태계 전체, 브라흐만으로 인식될 때 스스로의 궁극적인 본질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개체는 브라흐만이자 아트만으로서 생태계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설 『연꽃바다』에서 한승원이 주장하는 바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개체가 순환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 무기물 등 모두가 순환성을 담지한 자연이므로 순환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연의 자생력을 빼앗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활용하고 활용되어야 지속적인 순환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43) 와위크 폭스, 정인석 역, 『아네 내스와 디프 이콜러지의 의미』, 앞의 책, 153쪽.

44) 우파니샤드, 석지현 역주, 『우파니샤드』, 일지사, 2006, 16쪽 참조.

#### 4. 맺음말

지금까지 한승원 소설 『연꽃바다』의 작품세계를 살펴본 결과 심층생태주의가 도출되었다. 그의 소설에서는 먼저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유발된 생태계 파괴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사유로서 심층생태주의의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복잡성, 순환하는 생태계가 논의되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꽃바다』에서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도출되었다. 생태계 위기와 관련하여 두드러지는 점은 매실농장을 둘러싼 형제들간의 다툼이다. 이들은 물질을 표상하는 매실농장을 두고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추구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설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욕망을 인간중심주의적 현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매실농장을 둘러싼 박주철 일가의 분쟁과 그에 대한 비판은 인간중심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으로서 심층생태주의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토대가 된다.

대안의 사유로서는 관계론적 평등성이 먼저 논의되었다. 소설 『연꽃바다』에서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고루 등장한다는 데서 관계론적 사유가 포착된다. 공간적 배경인 바다와 언덕 역시 물과 땅의 결합을 의미함으로써 생명현상을 가능케 하는 관계의 현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소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인물들은 모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토로하는가 하면 박새의 알[卵]로서 표상된 실재는 관계 그 자체이자 ‘과정’이라는 사유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유기론적 복잡성의 논의로 이어졌다. 제목인 ‘연꽃바다’에서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는 특성으로서 혼돈으로부터 출현하는 생명현상으로 의미화되었다. 또한 지구생태계를 표상하는 ‘땅끝 마을’은 피어난 연꽃의 형태와 닮았다는 점에서 프랙탈 현상으로 논의되었다. 이 소설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토말의 외침 역시 같은 의미의 반복과 반복되는 파동의 특성으로써 프랙탈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토말의 외침으로

눈을 뜬 박주철이 이승에 잠시 돌아와 전달하는 메시지는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가 되는 요가이다. 여기서 ‘요가’는 전체에 합일하고자 하는 개체의 유기체적 지향으로서 합생을 암시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심층 생태주의의 복잡성이 도출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환하는 생태계에서 모든 생명은 우주의 흐름과 연결되며 끊임없이 재생하는 속성이 논의되었다. 먼저 자기 소멸과 자기 갱신을 영구히 하는 힘으로써 꼬리를 맴도는 우로보로스의 순환성이 추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어지는 순환성, 생태계와 개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트만과 브라흐만의 순환성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땅끝마을로 표상된 지구생태계의 모든 개체적 존재는 각자의 생명성으로 생겨나고 변화하는 가운데 순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설 『연꽃바다』에서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의 사유가 논의되었다. 심층생태주의의 핵심 강령인 관계론적 평등성을 바탕으로 유기체적 복잡성의 지향, 순환하는 생태계에 대한 원리가 도출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한승원의 소설 『연꽃바다』에 관한 생태주의의 연구에서는 화엄사상 그 자체를 생태계 위기에 대응한 대안적 사유로 논의함으로써 적합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근대 경험 이전의 사유로서 근대 경험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의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꽃바다』에 나타나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생태계의 원리를 심층생태주의로 논의했다. 『연꽃바다』에 나타나는 관계성, 복잡성, 순환성의 사유를 작금의 대안적 패러다임인 심층생태주의의 관점으로 재조명함으로써 현실적인 적합성을 획득한 것이다.

## 참고문헌

- 한승원, 『연꽃바다』, 세계사, 1997.
- 고현철,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 시학』, 새미, 2005.
- 고형진, 「죽음과 사랑, 그리고 불교적 상상력」, 『작가세계』 31, 세계사, 1996, 88~96쪽.
- 구자희, 「접화군생의 질서를 통한 에콜로이즘의 발현: 한승원의 『연꽃바다』론」, 『현대소설연구』 2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 권명아, 「에도는 숨결들의 교감」, 『작가세계』 31호, 1996, 겨울호, 97~113쪽.
- 권영민, 「토속적 공간과 한의 세계」, 『한승원 삶과 문학』, 문이당, 2000.
- 김경희, 「한승원 『불의 딸』 원형분석」,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동명, 「이성선 시의 심층생태주의적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56집, 2010.12.
- \_\_\_\_\_, 『심층생태주의의 유기론적 시학』, 국학자료원, 2013.
- 김성곤,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외국문학』 25, 1990, 79~88쪽.
- 김성동, 「환경문제와 불교사상」, 『녹색평론』 제 10호, 1993.
- 김용민, 『생태문학』, 책세상, 2003.
- 김옥동, 「녹색소설과 생태학적 상상력」,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 김정하, 「‘原水’ 체험과 ‘바다’ 모티프의 관련성 고찰 - 제주도 무속설화 ‘이공본풀이’와 한승원의 『바다의 빨』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연구』, 제1호, 한국해양대 해양문화연구소, 1996.
- 김종성,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의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김주연, 「샤머니즘은 한국인의 정신인가」, 『한승원 삶과 문학』, 문이당, 2000.
- 김형중, 「호남 현대소설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의 정신분석학적 고찰-바다와 모더니티」, 『현대문학이론연구』 28,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 박정일, 「불교의 공과 데리다의 디페랑스」, 『비평과 이론』, 1999. 205~206쪽.
- 박삼열, 『스피노자의 윤리학 연구』, 선학사, 2002, 17~38쪽.
- 서희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샤머니즘 양상 연구: 김동리<무녀도>, <을화>와 한승원의 <불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송명규, 「생태철학」, 『현대생태사상의 이해』, 따님, 2004.
- 신덕룡, 「생명시의 성격과 시적 상상력」, 신덕룡 엮음, 『초록 생명의 길 II』, 시와사람사, 2001. 222쪽.
- \_\_\_\_\_, 「바다, 욕망과 반역의 공간」, 『작가세계』 31, 세계사, 1996, 60~71쪽.
- 양진오, 「바다, 어머니의 자궁 그리고 신화」, 『작가세계』 31, 세계사, 1996, 72~87쪽.
- 오형엽, 「에로스·시간·화염」, 『한승원 삶과 문학』, 문이당, 2000.
- 윤영수·채승범,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이루미, 「한승원 소설 인물의 욕망에 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선영, 「한승원 소설에 나타난 한의 양상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진우, 『녹색 사유와 에코토피아』, 문예출판사, 1996.
- 이태동, 「역사와 생명력의 움직임」, 『한승원 삶과 문학』, 문이당, 2000.
- 장윤호, 「소설에 나타나는 고향탐색 모티프 양상 연구-김승옥·이청

- 준·한승원 소설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장일구, 『역사와 허구의 변증 - 한승원 소설의 구성논리』, 『작가세계』 31호, 1996, 겨울호.
- 정문권, 『생태학적 상상력의 구현: 한승원의 『연꽃바다』를 중심으로』, 『인문논문』 14,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 정연희, 『생태학적 상상력의 구현: 한승원의 『연꽃바다』를 중심으로 1970년대 한승원의 소설에 나타난 ‘바다’의 생태론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3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 정정호, 『에코페미니즘』, 『탈근대 인식론과 생태학적 상상력』, 한신문화사, 1997.
- 진 술, 『한승원 소설의 현실 재현전략으로서 ‘바다’ 형상화가 지닌 의미 고찰』, 선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하응백, 『신화와 한의 소설 미학』, 『한승원 삶과 문학』, 문이당, 2000.
- 허유미, 『한승원 소설의 생태학적 세계관 연구』, 배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홍성태, 『생태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이론의 전개』, 『생태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2004.
- 노자, 김경수 역, 『노자역주』, 문사철, 2010.
- 데이비드 보움, 『짜인 우주, 퍼진 우주와 의식』,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테두리』, 민음사, 1991.
- 머레이 북친, 문순홍 역, 『자연철학을 향하여』, 『사회생태론』, 서울출판사, 1997.
- Arne Naess, 문순홍 편저, 『생태학의 담론』, 솔, 1999.
- 에드가 모랭, 신지은, 『복잡성 패러다임』, 『복잡성 사고 입문』, 에코리브르, 2012.

- 에드워드 로렌츠, 박배식 역, 『카오스의 본질』, 파라북스, 2006.
- 와위크 폭스, 정인석 역, 『트랜스퍼스널 생태학』, 대운출판, 2002.
- 우파니샤드, 석지현 역주, 『우파니샤드』, 일지사, 2006.
- James E. Lovelock, 홍유희 역, 『가이아Gaia』, 범양사, 1990.
- F. 카프라, 이성범 외 역,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출판부, 1985.
- 쿠퍼 진, 이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2007.
-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과정과 실재』, 민음사, 1991.
- Bill Devall and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Salt Lake City, 1985)
- F. Capra, *Ecological Literacy, The Web of Life*(Anchor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Deep Ecological Patterns in  
*A Sea of Lotus Flowers* by Han Seung-won

Kim, Dong-myeong

This paper presents a discussion about deep ecology with *The Sea of Lotus Flowers* by Han Seung-won.

The investigator first found that the novel was based on the theme that anthropocentrism caused the crisis of ecosystem and then discussed relational equality, organic complexity, and circulating ecosystem that represented the principles of ecosystem as alternative thoughts to the theme. Relational equality led to the thinking that beings could be manifested as all the individuals and phenomena in the ecosystem were connected to one another through the setting and communication of characters. In addition, there was a topic identified that all things in the universe belonged to the system of complexity as “one.” Furthermore, “Ttangkkeut Village,” which is the backdrop of the novel *The Sea of Lotus Flowers*, and the conversations of the village people led to another topic that the ecosystem was the root of manifestation of circularity and the carrier of consolidation.

The findings clearly show that there was deep ecology, which is a line of thinking about the current ecosystem crisis, reflected in *The Sea of Lotus Flowers* by Han Seung-won, who sought after to restore the organic characteristics of ecosystem by escaping from anthropocentrism in the novel.

Key Words : Han Seung-won, deep ecology, Hwaeom ideology,  
relational equality, organic complexity, circularity

- 논문접수 : 2015년 3월 23일
- 심사완료 : 2015년 4월 14일
- 게재 확정 : 2015년 4월 20일